

아모스 서론

1. 저자

- ‘아모스’서의 저자는 선지자 ‘아모스’라는 사실에 이견이 없음.
 - 1 장 1 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상으로 선지자 아모스에게 임했음을 밝힘.
 - 또한 아모스서 전체에서 아모스를 가리킬 때, ‘내가’ 라는 1 인칭 주어가 사용되고 있음.
- 그럼 선지자 ‘아모스’는 어떤 사람인가?
 - ①. 우선 선지자 ‘아모스’와 ‘이사야’ 선지자의 아버지 ‘아모스’(사 1:1)를 혼동하면 안됨.
 - 선지자 ‘아모스’ = ‘짐을 진 자’이고, ‘이사야’의 아버지 ‘아모스’ = ‘강한 자’란 뜻!
 - ②. 그는 예루살렘 남쪽 약 16km 떨어진 드고아 출신의 평범한 유다 사람이었음.
 - 그의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기 전까진 이곳에서 가축을 돌보던 가난한 목자/농부.
 - ③.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후에는 북이스라엘의 벳엘로 이주하여 유다 사람이지만 북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(예언)을 선포함!
 - 그런데 당시 벳엘을 여로보암 2 세가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음!
 - 그로 인해 그가 전한 말씀들은 심한 반발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고, 어쩔 수 없이 다시 유다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들을 글로 써서 전하기 시작함!
 - 그래서 학자들은 ‘아모스’를 최초의 ‘문서 예언자’로 칭하기도 함.

2. 기록 연대 및 시대적 배경

- 우선 ‘아모스’는 ‘호세아’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한 남유다 출신의 북이스라엘 선지자!
 - 당시 남유다는 ‘웃시야’ 왕이 통치했고, 북이스라엘은 ‘여로보암 2 세’가 통치함
 - 따라서 기록 연대는 ‘여로보암 2 세’와 ‘웃시야’ 왕 통치 중/후반인 B.C. 760 경으로 추정.
- 시대적 상황
 -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‘다윗’과 ‘솔로몬’ 시대처럼 정치/경제/사회 전반적으로 큰 평화와 번영을 누리던 시대!
 - 특별히 당시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위협하던 아람 왕 ‘벤하닷 3 세’가 앗수르에 패하며 북왕국을 위협하던 세력이 일시적으로 사라진 상태.
 - => 그로 인해 ‘다메섹’이 ‘여로보암 2 세’의 통치권 아래로 들어갔고(왕하 14:28), 북왕국의 영토는 ‘하맛’까지 확장됨!!
 - => 그러나 이런 국가적 번영은 결국 심각한 우상숭배와 사회적 부패와 타락으로 이어짐!!

3. 본서의 중심 주제와 내용, 핵심구절

- 중심 주제
 - 북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 열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며,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악을 바로 깨닫고 신속히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!

- 내용 => 크게 4 부분으로 나뉨!

- ①. 1-2 장: 북이스라엘과 남유다, 주변 6 개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.
- 각 나라들의 죄를 다 지적하시면서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예언!
- ②. 3-6 장: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
- 북이스라엘의 운명(3 장), 타락(4 장), 북이스라엘을 위한 애가(5,6 장)
- ③. 7-9 장: ‘아모스’가 받은 5 가지 환상
- ④. 9 장: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.

- 아모스의 핵심 구절들

- ①. 5 장 4-6 절

“... ,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. 벳엘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.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벳엘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,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.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 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벳엘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.”

- ②. 5 장 14 절

“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.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하시리라.”

- ③. 5 장 24 절

“오직 정의를 물 같이,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”

- ④. 9 장 15 절

“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.”

- ❖ 참고로 한 권으로 읽는 소선지에서의 아모스서의 위치와 역할

- 우선 ‘아모스’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한 ‘호세아’ 선지자는 ‘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’을 강조하며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며 회개를 선포했음!
- 그러나 ‘아모스’ 선지자는 ‘공의와 정의의 하나님’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며, 북이스라엘의 죄는 물론이고 주변국들의 죄까지 지적하며 회개를 선포함!
- 또한 아모스서는 다른 선지서들에 비해,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기록한 비중이 훨씬 적음!
- 그래서 신학자 훔발트는 ‘아모스’를 ‘정의를 부르짖는 투사’라 표현했고, 한스 볼프는 ‘아모스서는 고성능의 폭탄’이라 표현함!

- ❖ 아모스 1 장, ‘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들 1’

1. 하나님의 이상을 받은 ‘아모스’ (1-2 절)

- 1) 하나님은 남유다 출신의 평범한 드고아 목자 ‘아모스’에게 북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. (1 절)

- 우선 '아모스'는 남유다 드고아 출신의 평범한 목자요 농부였음!
 - 아모스 7 장 14-15 절에서, '아모스'는 뽕엘의 제사장 '아마샤'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함!

“...,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,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.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 떼를 따를 때에,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,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”
- 하나님은 그를 '웃시야'가 (BC 792-740) 남유다를 다스리고, '여로보암 2 세'가 (BC 793-754년)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기에 부르심!
 - 시대적 배경은 서론에서 다루었듯이 정치/경제/사회 모든 면에서 번영을 누리던 때!
 - 그러나 종교적으로 심각한 우상숭배 및 사회적 부패와 타락이 가득 찼던 때!!
- 그럼 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경고하시기 위해 남유다 사람, 그것도 평범한 시골 목자 '아모스'를 선택하셨을까?
 - ①. 그만큼 당시 북이스라엘이 타락하여, 여호와와 말씀과 이상이 희귀해졌음을 반증하는 것!
 - 아모스 8 장 11 절 참고

“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,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”
 - ②.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, 약한 것, 천하고 멸시 받고, 없는 것들을 택하사, 지혜롭고 강하고 부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패하게 하시는 분임을 증거! (고전 1: 26-29)
 - 여기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고, 하나님 말씀의 증인으로 살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조건 때문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, 주권적인 역사하심 때문임을 기억하며 항상 겸손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성도가 되자!
- 2) '아모스' 선지자는 '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,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실 것'이라 선포했습니다. (2 절)
 - 시온과 예루살렘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던 성전이 있던 곳으로, 오늘날 교회를 상징!
 -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면, '목자의 초장이 시들고, 갈멜산 꼭대기가 마를 것'이라고 선언!!
 - '목자의 초장' = 유다의 남쪽 초원을 의미, / '갈멜산 꼭대기' = 북이스라엘의 성지를 의미!
 - 결국 남북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경고하게 하신 것!!

2. 이스라엘 주변국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 (3-15 절)

- 우선 1 장 3-15 절까지 4 나라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고, 2 장 1-16 절까지 다음 3 나라에 대한 예언이 선포됨!
 - => 그런데 이 모든 나라들은 다 남북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한 그 주변국들임.
- 각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주어질 때,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이 있음!
 - ①. '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'
 - '아모스'가 전하는 모든 말씀들은 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주신 말씀!

-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주가 되심!!

②. ‘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’

- 서너 가지 죄란 문자 그대로 3-4 가지의 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, 많은 양의 죄를 의미!
(ex: 각 나라의 죄를 지적하실 때 대부분 대표적인 죄 한가지만 언급)

③. ‘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’

- 죄의 심각성을 나타내시며, 각 나라들의 죄악이 심판 받기에 충분한 극에 달했음을 의미!!

1) 다메섹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(3-5 절)

▪ 우선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로 3-5 절의 말씀은 아람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!

▪ 그럼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아람의 죄는 무엇인가? (3 절)

=>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힘!

- 곧 철 타작기가 지나간 자리에 곡식 단들이 잘게 부서지는 것처럼, 저들이 끊임없이 길르앗 땅을 침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음을 지적하신 것!

- 참고로 아람은 ‘하사엘’ 왕과 그의 아들 ‘벤하닷’ 시대에 가장 악랄하게 르우벤 지파, 갓 지파, 므낫세 반 지파가 살던 길르앗 땅을 침략하며 저들을 괴롭게 함!!

▪ 그럼 하나님께서 아람에 내리실 심판은 무엇인가? (4-5 절)

①. 다메섹에 있는 ‘하사엘’과 ‘벤하닷’의 모든 궁궐들을 다 불태우실 것!

②. ‘다메섹의 빗장을 꺾으실 것’

- 곧 견고하고 안전하다 생각한 다메섹의 성문들이 부서지고, 적들의 손에 넘어갈 것!

③. ‘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, 뽕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실 것’

- 특별히 ‘아웬과 뽕에덴’은 아람 사람들의 우상숭배의 중심지였음!

- 곧 모든 우상숭배자들을 멸망 당하게 하실 것!

④. 남은 자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형벌을 당하게 하실 것!

✓ 실제로 이와 같은 예언은 B.C. 732 년 앗수르의 ‘디글랏 빌레셀 3 세’의 정복 전쟁으로 인해 완전히 성취되었음!! (왕하 16:6-9)

2) 가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(6-8 절)

▪ 우선 가사는 블레셋의 수도로 6-8 절의 말씀은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!

▪ 그럼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블레셋의 죄는 무엇인가?

=>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에돔에 넘김!

- 참고로 당시 가사는 상업의 요충지였고, 특히 노예 매매의 중심지였음!

- 역대하 21 장을 보면,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를 침략하여 여호람의 가족들과 왕국의 모든 재물을 약탈했고, 이때 많은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에돔 사람들에게 팔아 넘김!

- 또한 저들은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할 때, 블레셋으로 피난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 헬라인들에게 팔아 넘김! (요즘도 난민들을 상대로 한 인신매매가 심각함!!)

▪ 그럼 블레셋에 내리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인가? (4-5 절)

①. 가사 성의 모든 궁궐들을 다 불태우실 것!

②. 블레셋을 대표하는 모든 성들(아스돗, 아스글론, 에그론)과 방백들을 다 쳐서 멸하시고,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도 다 멸망시키실 것!

- ✓ 이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을 향한 철저하고 강력한 심판과 보복을 의미!!
- ✓ 참고로 블레셋은 웃시아 왕과 히스기야 왕 때 크게 파괴되었고(대하 26:6-7, 왕하 18:8), 그 후 애굽, 바벨론, 헬라의 지속적인 침입을 받으면서 결국 멸망함!

3)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(9-10 절)

- 두로는 시돈과 더불어 베니게 지방의 가장 중요한 국가
 - 특히 두로는 '다윗'과 '솔로몬' 시대에는 유다와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맺었던 나라.
 -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'아합' 왕 시대에는 두로와 친밀한 시돈 왕의 딸 '이세벨'을 왕후로 맞이 하며 더욱 더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됨 (왕상 16:29).
- 그럼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두로의 죄는 무엇인가?
 - =>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,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김!
 - 특별히 두로 왕 '히람'은 '다윗'과 '솔로몬'에게 형제 계약을 맺으면서, 상대방의 국민들은 결코 노예로 사고 팔지 않겠다는 언약을 맺음! (삼하 5:11, 왕상 5:1-12, 9:13)
 - 그러나 두로는 이 같은 언약을 일방적인 파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돔으로 팔아 넘김!
- 그럼 두로에 내리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인가?
 - => 모든 궁궐과 성이 다 불타며 멸망 당하게 하실 것!
 - ✓ 두로는 B.C 332 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수천명의 지도자들이 사형되고, 약 3 만 명의 남은 자들이 노예로 팔려가며 완전히 멸망됨.
 - ✓ 참고로 성도는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의를 지키는 자들이 되고자 힘써야 할 것!!

4)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(11-12 절)

-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에돔의 죄는 무엇인가?
 - ①. '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'
 - 여기서 '그의 형제'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 말!
 - 에돔의 조상은 _____ 로써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야곱의 형이었음!
 - 곧 에돔은 이스라엘 민족과는 형제국가나 다름없는 나라!
 - ②. 그런데 저들은 (이스라엘을 향한) '궁핍은 버리고,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, (이스라엘을 행해) 끝없이 분을 품었음'
 - 모세는 에돔을 이스라엘의 형제라 부르며(민 20:14), 에돔을 침범치 말라고 명령! (신 2:4)
 - 그러나 에돔은 출애굽의 행로를 막았고(민 20:14-21),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삼고자 했고, 이후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자 할 때, 바벨론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유다의 패망을 도움!!(욥 1 장).
 - => 곧 원수보다 더한 형제들이 바로 에돔 사람들인 것!!
- 그럼 에돔에 내리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인가?
 - => '데만에 불을 보내 '보스라'의 궁궐들을 사르실 것!'

- 참고로 ‘데만’은 에돔을 칭하는 다른 명칭이고. ‘보스라’는 에돔을 대표하는 도시로, 에돔의 초대왕 ‘요밥’의 아버지의 고향.
- 참고로 말라기 1 장 3 절
“에서는 미워하였으며,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,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”

✓ 결국 에돔은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도우며 바벨론의 속국으로 지내다 망했고, 로마의 침략으로 민족은 완전히 흩어졌고, 현재는 유대인들에게 흡수되어 족속자체가 없어짐.

5) 암몬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(13-15 절)

- 우선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신의 둘째 딸과 동침하여 낳은 아들 ‘벤 암미’의 후손들.
- 어찌 되었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친족관계에 있던 나라!

- 그럼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암몬의 죄는 무엇인가?
=>’자기 지경을 넓히고자, 길르앗 땅을 침략하여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’
- 참고로 성경에 묘사된 암몬은 대로부처 영토 확장에 욕심이 많았던 족속! (삿 11 장)
- 그런데 저들은 이스라엘의 원수 아람과 동맹을 맺고(삼하 10 장), 항상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고자 함! (왕하 8:12)

- 그럼 암몬에 내리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인가?

- ①. 랍바 성과 모든 궁궐들이 다 불태워 질 것!
- 랍바는 암몬의 수도로,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 그 성을 다 불태워 제가 되게 하실 것!
- ②. 그때 왕과 지도자들,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게 하실 것!

✓ 암몬은 B.C 580 년경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완전히 멸망 당함!

❖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서 든 생각과 결단한 내용들이 있다면?

❖ 중보기도 나눔